

그리스도의 승천

조토 디 본도네(Giotto di Bondone, 1267-1337), 1302-1305
프레스코화, 185x200cm, 스크로베니 경당 이탈리아 파도바

입당송 | 사도 1,11 참조

갈릴래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주님은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알렐루야.

제1독서 | 사도 1,1-11

화답송 | 시편 47(46),2-3,6-7,8-9(◎ 6)

-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또는 ◎ 알렐루야.)
-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경외로우신 분, 온 세상의 위대하신 임금이다. ◎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노래하여라,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노래하여

라, 우리 임금님께 노래하여라. ◎

- 하느님이 온 누리의 임금이니, 찬미의 노래 불러 드려라. 하느님이 민족들을 다스리신다. 하느님이 거룩한 어좌에 앉으신다. ◎

제2독서 | 에페 1,17-23<또는 4,1-13 또는 4,1-7.11-13>

복음환호송 | 마태 28,19.20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복음 | 마르 16,15-20

영성체송 | 마태 28,20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알렐루야.

하늘이 땅을 품어주시니 땅에는 하늘이 담기고...



이계철 라파엘 신부 | 주교좌 기도사제

오늘은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모든 여정을 마치시고 하느님 아버지의 권능으로 하늘에 오르십니다. 주님께서 하느님께로 가십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에 나오는 주님께서 승천하신 그 하늘은, 하느님께서 계신 곳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듭니다. 주님께서 오르신 하늘은 땅을 품어주는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에는 하늘이 담겨 있습니다.

잔잔하고 푸른 바다는 파란 하늘을 담고 있기 때문에 평화롭고 아름답습니다. 반면에 폭풍우가 치는 바다는 먹구름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납고 질고 어둡습니다. 그렇듯이 어떤 하늘을 담고 있는지에 따라서 땅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오르신 하늘은 한없이 높고 푸르고 평화로운 하늘입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름에 감싸여 시야에서 사라지셨는데도 넋을 잃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비로소 천사가 알려줄 때까지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인간은 하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바라봄이 있어야 합니다. 승천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으로서 성부와 완벽히 일치하시게 되셨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느님

을 닮고 산다면, 하느님 나라가 바로 여기에 오심을, 예수님께서 푸른 하늘을 담은 우리 마음에 항상 살아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들의 마음은 무슨 색깔일까요? 하느님을 담은, 그래서 하느님을 닮은, 맑고 밝고 푸르고 넓고 평화로운 마음이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자주 하늘의 하느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하느님의 하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늘은 가장 멀리 있는 곳인 것 같지만, 사실은 언제나 바라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우리가 고개를 들고, 눈을 크게 뜨고, 하늘을 바라보려고 노력한다면 말입니다. 하느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오르셨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오늘 주님 승천 대축일부터 앞으로 네 번의 주일 전례 시기를 통해서, 우리는 끝없이 펼쳐지는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은총의 주일들을 지냅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법과 모습으로 인간 가까이서 함께하시려는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지극한 사랑을 담아내고 닮아서 세상에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승천하신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승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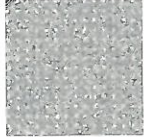
조토는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의 시선이나 생각하는 모든 영역을 넘어서는 신비임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손이나 다양한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올라가는 의인들과 그 자리에 함께하는 이들은 우리가 닮아야 할 모범입니다. 이 성화를 바라보며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도록 다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지철 바오로 신부 | 교구 성미술 담당

성화
해설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가톨릭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한 걸음씩 자분자분, 그래도 괜찮아



박지현 요셉피나 | 방송작가 겸 수필가

꽃들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대문 안에 있는 수도와 연결된 긴 호스로 주면 되는데, 그조차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물통에 받아서 물을 주게 되는데, 문제는 물통이 커서 저에겐 버겁다는 겁니다. 그걸 알면서도 저는 한꺼번에 물을 가득 채워서 물을 줍니다. 욕심이지요. 무거운 물통을 들고 물을 준 날엔 어깨와 허리, 갈비뼈 부분이 뼈근해 집니다. 그럴 땐 물통을 3분의 1 정도만 채운 다음, 한 번이 아닌 몇 번에 나눠서 왔다 갔다 합니다. 뭔가를 할라치면 예전에 완벽하게 다 채워야만 하고, 한 번에 많은 양의 일을 해내야만 그다음 일이 수월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만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일을 해내고 빨리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제 역량의 한계를 인정하는 게 더 중요하단 걸 깨달은 겁니다. 누가 알려주었을까요. 작은 길의 성녀 소화 데레사입니다. 그분은 제 삶에 많은 영감을 주시며, 크고 특별하고 거창한 길만을 찾아 헤매은 저에게 하느님의 아이가 되어 작고 평범한 길을 한 걸음씩, 자분자분 걷는 인생도 있다는 걸 안내해 주셨습니다.

4년 전, 남편과 함께 산티아고 순례에 나섰습니다. 프랑스 생장으로 가기 전에 소화 데레사 성녀가 태어나고 자란 프랑스 알랑송과 리지외에 들러서 3박 4일 피정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바친 기도의 응답이었던 걸까요. 리지외에 머무는 동안 저희는 말로만 들던 작은 길의 영성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의 유료 화장실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20센트짜리 동전을 넣었는데 열리지 않는 겁니다. 청소부에게 물어보니 10센트짜리 동전만 넣으랍니다. 암만 뒤져도 10센트는 없었습니다. 100유로, 10유로짜리 지폐가 있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10센트 동전은 쓰임새가 없다고 여겨서 소홀했던 거지요. 간신히

잔돈을 바꿔서 10센트를 넣으니 바로 열렸습니다. 아무도 열지 못한 화장실 문을 작은 동전 한 개가 연 겁니다.

작음이 뭐가 문제일까요. 꼭 큰 물통에 물을 가득 담아서 킁킁거리며 줄 일이 뭐난 말이지요.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무게로 나눠서 조금씩 주다 보면, 꽃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저 역시 작고 평범한 행복감을 맛볼 수 있을 텐데요. 리지외에서 체험한 동전 사건 덕분에 저는 800킬로미터나 되는 산티아고 길을 한 번에 무리해서 걷지 않고, 한 걸음씩 천천히 걸으며 너무 작아서 흔히들 지나치는 들꽃과 바람과 하늘의 맑음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그 힘들다던 피레네산맥은 제게 한 걸음의 기적을 맛보게 해준 작은 길이었습니다. 커다란 물통에 물을 다 채우고픈 욕심이 날 때마다, 소화 데레사와 작은 동전을 떠올립니다. 이처럼 저는 크고 특별하고 위대한 것만이 소중한다고 여긴 과거의 생각들을 떨쳐 버리면서, 어린아이처럼 작고 평범하고 약한 존재가 되어도 괜찮다고 알려주시는 성녀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중입니다. 잘 되지는 않지만, 한 걸음씩 해보는 겁니다. 천천히 말이지요.

한
것
교
리

우리 자신의 삶과 자연과 맺은 관계를
올바로 돌보는 것은 형제애, 정의,
다른 이에 대한 충실함과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찬미받으소서 70항



마르코와 함께 떠나는 복음 여행

예수님과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

(마르 6,1-6)



이영제 요셉 신부 | 가톨릭대학교 문화영성대학원 교수

마을 어귀에 큰 나무가 보입니다. 고향 나자렛입니다. 산악 마을 특유의 따사로운 햇볕과 살포시 뽀뽀를 스치며 떠나가는 바람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잘 왔다.'라며 인사를 건넵니다. 일전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오기도 했었지만, (마르 3,31-35 참조) 예수님께서 복음 선포의 사명을 수행하는 중에 고향에 오신 것은 아마도 처음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음을 알아차린 마을 사람들은 반가운 인사를 건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나자렛에 머물며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던 중,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일행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회당으로 향합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은 회당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떠올리십니다. 친구들과 율법 교육을 받고 유대인으로 살아가면서 지녀야 할 정체성과 삶의 지혜를 배우던 회당.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 들어서시자, 회당장이 예수님께 다가와 오랜만에 들르셨으니 좋은 가르침을 달라고 청합니다. 율법서 낭독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마을 사람들은 다른 이스라엘의 스승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권위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가르침 안에 담긴 내용에 집중하기보다,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놀라운 가르침을 줄 수 있는지 의아해합니다. "아니, 예수는 우리가 잘 아는 목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아닌가? 그의 형제와 누이들도 우리가 잘 아는데,

도대체 재는 어디서 저런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된 거지? 듣자니 놀라운 기적도 일으킨다는데, 이런 능력을 어떻게 받게 된 걸까?"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을 보이거나 못마땅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또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기에,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들 안에 뿌리뽑기 힘든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예수님을 만나는 데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그들의 완고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몇 병자의 병을 고치는 것 말고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아무런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셨다고 마르코는 증언합니다.

때론 우리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치 예수님을 잘 안다고, 아니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잘 아는 척하며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선입견만으로 예수님을 만나려 한다면, 그 만남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결코 체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늘 새로운 마음, 열린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설 때, 진정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신비여!



조한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은 서로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내용은 신약에 영향을 주고, 신약의 많은 내용은 구약의 내용을 전제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신약이 구약에 숨어 있고 신약으로 구약이 드러나도록 지혜롭게 마련하셨습니다.”(〈계시헌장〉, 16항) 예를 들어,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신앙, 하느님 모상으로서 인간, 십계명 등 구약의 가르침은 신약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당연히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구약을 알아야 합니다. 두꺼운 구약성경 내용 전체를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선택’과 ‘계약’입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과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들이 계약을 지키면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습니다. 하느님 백성은 때로는 하느님 뜻에 맞게, 때로는 죄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느님 백성이 지었던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우상(偶像 Idol) 숭배’입니다. 이는 하느님이 아닌 것을 하느님처럼 여기는 것, 인간에게 바랄 수 없는 것을 인간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느님이 아닌 것을 마치 하느님처럼 여기거나, 자신의 필요와 욕망에 따라 하느님을 상상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더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입니다. 인간의 삶은 짧지만, 삶의 온갖 괴로움 때문에 인생이 길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이고 현세적인 행복을 얻기 위해 점을 보러 다니거나, 물질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기도 하며, 인터넷에

서 본 영상물을 절대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과 신앙인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신앙인은 하느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하느님만으로 충분한 사람입니다.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미사 중 사제는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먹어라 ... 받아마셔라.”라는 예수님의 성찬 제정문을 읊은 후, 신자들을 향해 신앙이 ‘신비’라고 선포합니다. 빵이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는 하느님의 신비를 인간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느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신앙은 참으로 신비입니다.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유일하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을 수 있는 힘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과 하느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분명 다릅니다. 때로 인간은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욕심대로만 살다가 결국 큰 코 다칩니다. “인간의 비참함을 모르고 하느님을 아는 것은 오만을 낳는다. 하느님을 알지 못하고 인간의 비참함을 아는 것은 절망을 낳는다.”(파스칼, 《팡세》) 인간은 하느님 앞에서 겸손하게 순명해야 합니다. 동시에 신앙을 가진 것이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한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지 못하는 삶과 죽음을 하느님께, 즉 하느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믿고 맡기며 살아야 합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펠리 1, 21, 공동번역)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은성제 요셉 신부 | 가톨릭청소년이동심터(서울A지T)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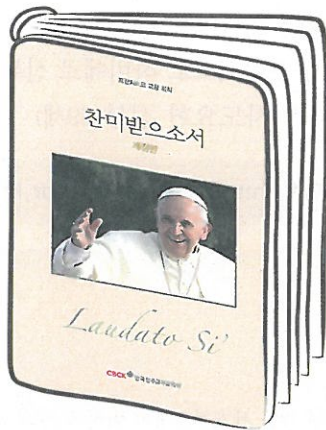
대학교 사목부에서 사목하던 시절에 만난 친구가 떠오릅니다. 올리안나라는 친구인데 지금은 어엿한 화가가 되어 자신의 커리어를 충실히 쌓고 있습니다. 부임 후 첫 주일미사 때 열심히 성가를 부르면서 새로운 신부인 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집중하던 친구의 모습이 잊히지 않습니다.

그해 연말 그 친구가 서울 가톨릭대학생연합회(이하 '서가대연')의 '중양 일꾼'(봉사자를 지칭하는 서가대연의 호칭)으로 봉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하여 57대 전례 팀장을 맡게 된 올리안나는 복음 나눔을 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예쁘지만 왠지 '왜소하다'는 인상을 받았었는데 알고 보니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단백뇨가 생겨 수술받았으나 결과가 좋지 않아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결국 학업도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당에서 주님을 못 만나는 것이 제일 아쉬웠다고 고백하는 올리안나를 보면서 대견하기도 하고, '나였다면 어땠을까? 하느님을 원망만 하지 않았을까?' 하면서 저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 후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면서 3년의 공백을 닫고 다시 중학교 학업을 시작한 올리안나는 매주 2회씩 하루에 3시간 이상 신장 투석을 받으면서도 성실하게 살아 미대에 입학해서 저와 만나게 된 것입니다.

행여 건강 때문에 봉사 활동에 도움이 되지 못 할까 두려워하면서도 건강한 친구들도 힘들어하는 서가대연 중앙 일꾼으로 받아들여지길 희망하는 올리안나의 진솔한 나눔에 저와 많은 이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올리안나는 1년 동안 누구보다도 밝고 성실하게 봉사했습니다. 매주 2회, 하루에 6시간씩 병원에 다니면서도요.

세월은 흘러 2019년. 제가 서울아지트 버스를 맡아서 거리 청소년들을 만나던 어느 금요일 새벽에 올리안나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신부님! 방금 신장이식 연락을 받고 입원하러 가는 길이에요! 간단한 검사 하나 더 하고 오늘 중 바로 수술할 것 같아요. 너무 기다려 온 순간이에요.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카톡을 보고 전화했는데 영영 울더군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18년의 긴 세월의 기다림과 아픔 앞에서도 여전히 하느님을 사랑하기에 서가대연에서도 봉사하고, 본당에서도 찬양밴드 보컬 봉사를 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올리안나를 주님께서는 잊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 제가 혹시라도 잘못된 내용을 전달할까봐 올리안나와 통화를 하면서 예전 힘들고 아팠던 시절 이야기를 다시 듣고 있습니다. 올리안나는 자신의 이야기를 편하게 쓰라고 하네요.) 모든 것을 기쁨과 감사의 추억으로 만드신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아멘!



도서 '찬미받으소서'

‘금사과’? 기후 위기를 직면하기



김우선 데니스 신부 | 예수회, 서강대학교 교수

사과 가격이 올랐습니다. 기후 변화의 결과,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면 다음 세대는 ‘금사과’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지는 않을까요?

그런데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에는 세대 간 차이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훨씬 더 심각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엠지(MZ)세대가 기후 위기에 대한 정부나 기성세대의 대응에 실망하고 있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2015년에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발표하면서 교회와 인류가 기후와 생태 위기를 직면하도록 초대하셨습니다. 교황님은 생태 위기를 가톨릭 신앙의 관점에서 성찰하며 더불어 사는 집인 지구를 돌보도록 인류에 생태적 회심과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이 회칙은 교회 안팎으로 반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9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내 학계를 포함해서 세계에서 수많은 학술 논문과 책이 이 회칙과 연관되어 쏟아져 나왔습니다. 생태적 실천을 위해 가톨릭 기관들은 적극적으로 호응했고, 어떤 대학들은 교내 패트병 생수 판매를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왜 이토록 반향이 컸을까요? 무엇보다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많은 분들이 이미 실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기후가 일상화하고, 세계 각지의 농어민, ‘기후 난민’들이 직접적으로 생계나 생존을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기후 위기는 미래에 닥칠 위기가 아니라 이미 체험하고 있는 현실이기에, 이 회칙의 반향이 컸을 것입니다.

이 회칙은 생태 위기의 뿌리로 ‘기술주의 패러다임’

‘인간중심주의’를 짚습니다. 그리고 만물과 만인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며 ‘통합적 생태론’과 ‘세대 간 연대’를 가르칩니다. 특히 가난한 이들의 외침과 지구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라는 초대는 울림이 컸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젓줄인 메콩강 상류에 중국 등이 여러 댐을 건설하면서 강 하류에 있는 캄보디아의 농어민과 생태계가 직격탄을 맞는 것을 이미 십여년 전에 보았기 때문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어떻습니까? 과연 환경 파괴의 결과는 가난한 이들이 먼저,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이어 다음 세대는 더 심한 파국을 맞을지도 모릅니다.

〈찬미받으소서〉에 한국 교회도 응답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구는 2030년까지 교구와 본당 사용 전력의 100%를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사순 시기 실천 사항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탄소단식’을 제시한 교구도 있습니다. 여러 교구와 수도회, 본당에서 나름대로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유엔은 이대로 가면 2015년 파리기후협정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이미 경고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갈 때입니다. 정부와 기업에 더 책임있는 응답을 요구해야 합니다. 5월 24일은 회칙 발표 9주년입니다. 10주년을 내다보며 〈찬미받으소서〉를 배우고 실천하며 목소리를 냅시다. 이 과정은 기후 위기의 긴장을 직면하는 것이지만, 우리와 다음 세대를 위한 회심과 기쁨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5월 12일)은 '주님 승천 대축일'이며 제58차 '홍보 주일'입니다

교회 도서 출판과 신문 방송에 더 깊은 관심을 두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들의 발전을 위해 홍보 주일 2차 헌금을 실시합니다. '홍보 주일' 담화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알림마당-교회 발표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79년 5월 14일 이계선 레오 신부(61세)
- 2023년 2월 24일 브렌단 호반 신부(76세)
- 2023년 4월 11일 최치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86세)
- 2023년 4월 20일 서유석 사도요한 신부(69세)

알림 접수: 서울주보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축하 메시지

신록이 짙어지고 불두화가 피어나는 아름다운 계절에, 서울대교구의 모든 신자들과 함께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을 축하드립니다. 황룡사 9층 목탑등을 비롯해 광화문 일대를 수놓은 연등의 찬란한 빛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이 온 세상을 환히 밝히길 소망합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스승의 날이기도 합니다.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마음을 세 번 깨달은 가섭존자처럼, 우리도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심을 본받아 각자의 삶 안에서 연꽃을

피워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이라는 봉축표어가 더없이 와닿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평화에서 오는 행복이 절실한 이때, 종교계는 화합과 일치의 모습으로 함께 평화를 일구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난 4월, '재밌는 불교'를 슬로건으로 열린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종교를 초월해 많은 젊은이들로부터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는 소식을 기쁜 마음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오는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역시 모든 종교를 아우르는 젊은이들의 축제가 되기를 고대하며, 불교계에서 준비 여정에 좋은 벗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부처님오신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모든 스님과 불자분들께 부처님의 지혜와 평화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교구청 알림

서울대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된 분은 5월27일(월)까지 교구 법원으로 연락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 성명: 윤진상 프란치스코
문의: 02)727-2130, 2131(주말, 공휴일 휴무)

제62차 피조물 보호를 위한 미사(우리의 지구를 위한 미사)

대상: 기후위기와 생태환경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과 후원회원
때, 곳: 5월16일(목) 11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주제: 임현호 신부(환경사목위원회 부위원장)
강론: 이재돈 신부(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문의: 02)727-2283, 2278 환경사목위원회

생명위원회

1) 5월 생명을 위한 월례미사
때, 곳: 5월13일(월) 11시, 명동성당 내 패밀리아채플
2) 희망으로 가는 길(낙태된 영혼을 위한 기도와 미사)
대상: 낙태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때, 곳: 5월14일(화) 13시30분~16시30분, 교구청 별관 6층 소성당
문의: 02)727-2353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2024년 사목국 성서못자리 성서특강

주제: 루카 복음의 평화: '죄로부터의 자유'
때: 6월26일(수) 10시30분~15시20분
곳: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대강의실(혜화동)
강사: 박진수 신부(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접수: 5월14일(화) 10시부터,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 '성서못자리 신청' 통해 사전 접수(신청수 400명) / 회비: 4만원(점심식사 제공)
문의: 02)727-2379 사목국 성서못자리

명동대성당 중국어미사 안내

때: 매일 첫째·둘째·셋째주(일) 오전 9시
곳: 명동대성당 코스트홀(문화관) 2층 소성당
문의: 02)774-1784

'슬픔 속 희망찾기' 자살유가족 5월 미사 안내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분들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 집전: 이창영 신부
때, 곳: 5월18일 매일 세번째(토) 10시(묵주기도), 10시30분(미사 봉헌),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
문의: 02)727-2495 한마음헌품자살예방센터

'2024 · 봄' 천주교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신앙, 인문학을 만나다>

교육명: 가톨릭 신학 강좌 - 하느님, 그리스도, 교회
강사: 조한규 신부
때: 5월16일~30일 매주(목) 19시30분~21시
곳: 영성센터 B203호 / 문의: 02)727-2047
접수: 문화학교 홈페이지(<http://culture.catholic.or.kr>)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1) 2024년 영성심리아카데미
교육명: 기도를 시로 쓰기, 우리의 마음건강을 위한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하는 법, 영적글쓰기, 현대미술-신앙을 말하다 / 문의: 02)727-2126
신청: 홈페이지(<http://seoultpc.catholic.or.kr>)-교육신청
2)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등 성인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명동),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문자 가능): 02)727-2139(월~금 10시~17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미사

때, 곳: 5월26일(일) 14시, 명동대성당 대성전
문의(주관): 02)727-2107 청소년국 장애인신앙교육부

서울대교구 혼인교리 안내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 '혼인교리 신청' 통해 사전 접수 / 현장 또는 온라인 중 선택
문의: 02)727-2070 사목국 교육지원팀

1418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때, 곳: 5월14일(화) 19시, 명동대성당
금주의 '내 마음의 복녘본당': 덕원자치수도원구 고산 본당 / 문의: 02)727-2420

2024 토요 성모신심

대상: 누구나(회비 없음) / 강의: 조창수 신부
내용: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때, 곳: 매주(토) 15시~16시, 가톨릭회관 205-2
문의: 010-8889-5425(문자) 성경통독 아카데미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이인옥 그림책 원화전: 1전시실
이인옥 회화전: 2전시실
구자희 차영주 2인전: 3전시실
전시일정: 5월8일(수)~16일(목)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여름학기 모집(성음악위원회)

대상: 연령 무관, 초급~최고급 과정까지
접수 및 등록: 5월1일(수)~24일(금) / 3개월 수업(6월~8월)
곳: 최양업홀(전철 1·4호선 서울역, 2·5호선 충정로역)
문의: 02)393-2213~5(<http://www.casm.co.kr>)

여름학기	실기전문 과정	오르간·피아노·반주·성악·합창지휘·작곡·CCM·관악기·현악기·바로크악기·국악
	양상반트	그레고리오성가(남·여)·성악(남·여)·플루트·현악·목관·리코더·클래식기타 등

인준단체 알림

모임

혼인성소 찾기 피정 / 문의: 010-3173-2665
 접수: 다음카페 'oh oh my half' / 최영민 신부(예수회)

ICPE 무신론 문화와 인격적 신앙 피정
 내용: 강의, 나눔(선착순 15명) / 문의: 010-5646-6594
 때, 곳: 5월26일(일) 10시~17시, ICPE 선교회센터(합정동)

평화의 모후 청년 쉼 모임(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대상: 미혼 /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때, 곳: 매주(금) 19시30분, 가톨릭회관 516호

예수회 영신수련 침묵 피정(이나시오 영성연구소)
 때, 곳: 4박5일 7월17일(수)~21일(일)·7월26일(금)~30일(화), 예수회센터
 문의(접수): 02)3276-7794(ciskorprov@gmail.com)

말씀여행 피정(도미니코 수도회)
 내용: 성 도미니코의 삶, 성경강의, 성사 및 기도 지도: 안소근 수녀, 이효준 신부 / 회비: 20만원
 때, 곳: 6월7일 19시~9일 점심, 도미니코 수도회(우이신설선 4.17민주묘지역 도보 5분) / 010-2034-0042

예수회센터 하루 피정
 토요일 피정: 6월8일(토) 10시~15시30분(15시 미사)
 강사: 배영길 신부 / 9월~12월 일정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정의 수강료가 있으며 단체 환영합니다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s.kr)

교구 순례·성베네딕도왜관(신축) 수도원 탐방
 때: 6월15일~18일·8월24일~27일(수도원 대구 17곳), 7월13일~16일(수도원 부산 8곳·마산 6곳), 7월26일~30일(울릉도·독도·수도원)
 출발: 가톨릭회관(명동) 후문 / 문의: 010-3807-1784 라 이시돌(예관 성 베네딕도 피정의 집)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5월14일 정병덕 신부 5월21일 성시간·위령미사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함께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문의(접수): 064)756-6009, 02)773-1463 제주 자연 피정
 자연 순례 6월10일~12일, 6월22일~24일, 7월19일~21일
 여름 특별 피정 7월25일~28일, 8월2일~5일, (우도 자유 일정 포함) 8월8일~10일, 8월14일~17일
 성지순례 6월3일~6일, 6월15일~18일, 9월7일~10일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곳: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주최)
 문의(접수): 010-4906-5722, 031)953-6932
 1박2일 6월8일(토)~9일(일), 8월24일(토)~25일(일)
 3박4일 6월27일(목)~30일(일) 4박5일 5월27일(월)~31일(금)
 8박9일 6월13일(목)~21일(금), 7월4일(목)~12일(금)
 40일 10월4일(금)~11월12일(화)

2024년 DMZ 평화의 길
 대상: 초3 이상 누구나(차수별 40명 선착순)
 때, 곳: 5월24일(금)~26일(일), 파주-연천-철원
 회비: 15만원 / 문의: 031)941-2766(www.pu2046.kr)
 주최: 천주교 의정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의정부교구 성령대축제(의정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미사: 손희송 주교(교구장)
 강사: 이재화 신부, 김경진 신부
 때: 5월15일(수) 9시~17시30분 / 회비: 5천원(티켓 구입)
 곳: 남양주 체육문화센터(남양주 다산자극로 91)
 문의: 010-2127-0032, 010-9697-9004

2024년 만주평화순례 참가자 모집
 '2024 만주평화순례' 안중근(도마)은 살아있다 안중근과 독립투사들의 애국혼과 숨결을 쫓는 평화의 여정 / 문의(접수): 064)739-0951
 때: 8월16일~21일(5박6일) / 선착순 20명
 곳: 단동, 하얼빈, 용정, 일송정, 도문 등
 주최: 제주교구 성 프란치스코 평화센터

제22회 젊은이 성령축제 참가자 모집
 성령강림대축일,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성령 하느님을 느끼고 싶은 모든 가톨릭 청년들을 초대합니다 / 회비: 1만원(점심식사 제공)
 주제성구: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골로 3,13)
 때, 곳: 5월19일(일) 10시~17시, 파주 DMZ생태관광지원센터
 문의(접수): 010-7185-5368 청년성령쇄신봉사회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쉬고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4년 연중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5월26일~29일(추자도)·6월21일~23일·7월1일~3일(추)·9월2일~4일·9월7일~9일·9월11일~14일(추)·9월21일~23일, 우도해변 포함 7월12일~14일·7월20일~22일·7월25일~28일·8월1일~4일·8월6일~8일·8월10일~13일·8월24일~26일 / 문의(접수): 064)796-4182, 02)773-1455 제주 자연 피정

예수고난회 서울 명상의 집 피정 / 문의: 02)990-1004

은인 피정 및 성모성월 기념미사	5월18일(토) 10시~17시
개방의 날	매월 첫번째(금) 6월7일 10시~15시30분
대침묵 피정	6월21일(금)~23일(일), 8월16일(금)~18일(일)
다네이영성수련 피정	8월22일(목)~25일(일), 10월25일(금)~27일(일)
성지순례 (성김대건 발자취를 따라서)	5월22일(수)~24일(금), 서울-광주 / 문의: 062)571-5004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기도회
 곳: 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버스 환승 500-504-6512-5535 천주교성령봉사회관 하차 / 02)867-7900

주일기도회	(일) 13시20분~17시	미사: 16시
월요일기도회	(월) 18시30분~22시	미사: 21시
치유기도회	(수) 13시~17시	미사: 16시
로사리기도회	(목) 13시~17시	미사: 16시
철야기도회	(금) 18시~22시	미사: 21시
생명축복기도회	(토) 16시~19시30분	미사: 18시
청년(부하)기도회	(금) 19시30분~21시30분	미사: 20시30분

예수전교회 치유대피정
 때: 5월18일 오후 1시~5시(4시 토 요특전미사) / 강사: 김완식
 곳: 가톨릭회관 1층 강당
 담당: 김인성 신부 / 문의: 010-8898-6770

교육
이콘강습(롯데포교 베네딕도회 서울 본원)
 김 헤르만 수녀 / 문의: 010-6746-1997 (문자)
성물·묵주 조각 기초에서 전문까지(가톨릭목공예)
 카페: cafe.naver.com/cmcc04 / 문의: 010-5234-5044

성가발성 노래교실 / 문의: 010-9842-8818
 '다함께 성가를 TV' 이호중 교수 직강
 곳: 시스피나음악원(주최, 신촌)
음악심리 상담사 자격 초급반
 때, 곳: 5월28일~6월11일 매주(화) 13시30분~16시30분, 한국음악치료연구소(연철3호선대청역) / 회비: 15만원
 문의: 010-4252-1165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

새천년복음화학교 150기 개강
 때, 곳: 4월24일(수) 14시·5월2일(목) 10시, 복음화학교 교실(가톨릭회관 5층) / 회비: 7만원
 문의: 02)753-8765, 010-8931-8765

2024년 순교영성 아카데미(순교영성특강)
 '순교영성'에 관한 다양한 주제의 특강(성경·교의·역사·영성·인문사회과학 등)
 때: 매월 둘째·넷째주(목) 14시~16시
 곳: 순교성지 새남터성지 / 홈페이지(www.kmartyr.com) 상세 프로그램 확인·수강신청 가능
 문의(접수): 02)3275-1485 순교영성연구소

국악성가연구소 수강생 모집 / 문의: 02)558-2004

국악성가 무료 강좌	매주(수) 14시 / 누구나 환영
초보자 반주장구	매주(목) 13시30분 / 회비 있음

해외가톨릭사립학교 학생 모집
 문의(예약): 02)2258-8983(oakinternational.co.kr)
 주최: 그리스도 레지오회 운영 해외학교법인

정규입학	초5~중2 / 미국·아일랜드(단기 가능)
여름캠프	초3~중2 / 시카고, 더블린, 보스턴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2024년 후기(주간)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5월27일(월)~6월7일(금)-전형일 6월22일(토) / 홈페이지: http://gsot.sogang.ac.kr
 문의: 02)705-8668 / 영성·철학상담: 철학을 중심으로 신학, 사회복지학 세 전공의 협동과정임

석사	신학(철학·철학상담), 사회복지학(사회복지·복지상담), 가톨릭사회복지학, 영성·철학상담
박사	신학(교의·조직 / 영성), 가톨릭사회복지학
석·박사통합	학(실천·정책·행정), 영성·철학상담

제24회 가톨릭평화방송 여름방학 영어캠프
 문의: 02)734-0999(www.pbccamp.com)

미국	국내 유일 미국 최고 명문 UCLA 영어캠프(다즈니랜드, 실리콘밸리 탐방)
영국	국내 유일 옥스퍼드 영어캠프(손흥민 토트넘, 서유럽투어)
사이판	가톨릭국제학교 정규수업과 현지 투어

원어 성경 기초반(히브리어·헬라어)

때: 7월부터 1년간 / (수) 19시30분~21시30분
 회비: 30만원씩 4회 / 방법: Zoom
 문의: 010-4598-6912 프란치스코회

마르코(예수님 수의와 함께) 무료 강좌

때, 곳: 매주(목) 10시~12시(미사 포함), 성 바오로
 수도회(서울시 강북구 송중동) / 문의·강의: 010-
 6287-9753 김길수 수사(성바오로수도회 영성센터)

서강대학교 '영성의 책꽂이' / 문의: 02)705-4711

주제: 단테 신곡과 신망애 / 회비 없음
 때, 곳: 5월20일(월) 14시~16시(강의·미사), 서강대
 학교 이나시오 소강당 / 강사: 김신춘 신부(예수회)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2024년 후기 신입생 모집

전공: 독서교육, 상담교육, 유아교육, 진로진학상담,
 특수교육, 직업특수교육, 평생교육, 한국어교육
 원서접수: 5월12일(일)까지 / 면접: 5월31일(금)
 홈페이지(https://ged.catholic.ac.kr) 참조
 문의: 02)2164-4176, 4787, 4173

신부와 함께하는 영성독서 프로그램

내용: 2단계 인문독서(6주) / 수료증이나 자격증 수여
 대상: 신자들의 영적 성숙 및 교회에서 봉사하
 고자 하는 분들 / 문의: 010-8477-6688
 때: 5월23일부터 매주(목) 19시30분~21시30분
 곳: 명동성당 교육관 304호 / 회비: 10만원
 주최: 가톨릭독서아카데미(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모집

재속 맨발 가르멜회 서울 십자가의 성 요한 회원 모집

대상: 만 55세 이하 견진성사 받은 분
 첫모임: 6월10일(월) / 문의: 010-9836-8998

명동대성당 가톨릭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대상: 만 18세~만 40세 남녀 가톨릭 신자
 활동: (일) 12시 교중 미사 및 대축일 미사
 오디션: 6월15일(토) 14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3층
 6월13일까지 이메일 접수(명동성당 홈페이지(PC
 버전) 단체 모집) / 문의: 010-3211-5195 (문자)

가톨릭시니어합창단 저녁반 창단단원 모집

성가발성도 배우고 성지순례도 함께하는 삶의 동행
 대상: 55세 이상 누구나 / 연습: 매주(수) 19시
 곳: 서강대 앞 연습실 / 오디션 먼저기간
 문의: 010-5245-2848 심준보(평화를 노래하는 가
 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아퀴나스 합창단 단원모집

아퀴나스 합창단(67년 창단 / 담당: 최호영 신부)이
 헨델의 오라토리오 '이집트의 이스라엘인'을 함께
 할(가을) 3-4대 새단원(각파트 약간명)을 찾습니다
 오디션: 자유곡(약보 지참) / 010-8000-3194 (문자) 총무

미사

군중후원회 월례미사·특강

강사: 하철민 신부 / 문의: 02)776-0457
 때, 곳: 5월13일(월) 14시, 국군중앙교좌성당(전철
 4호선 상용산역 1번 출구, 용산우체국 뒤 왜고개성지 내)

천주교서울교구제천교회 월례미사 / 문의: 02)749-4596

중남미 선교와 사제양성을 위한 후원미사입니다
 때: 5월27일(월) 14시 / 집전: 송영호 신부
 곳: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성음악미사와 작은 음악회

무반주 다성음악 전문 무지카사크라서을 합창
 단과 함께하는 성음악미사와 작은 연주회
 때, 곳: 5월31일(금) 19시30분, 목동성당 대성전
 지휘: 신기호 신부 / 문의: 010-9464-0680

서울고속버스터미널(준)성당 미사 / 문의: 02)535-6604

곳: 서울 고속터미널 경부선 10층(옥상공원 남산방향)

(화~금)	12시	(일)	11시·17시·21시
(토)	13시30분(토요 주일 미사)		

안내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문의·국내입양상담: 02)764-4741~3(www.holyfca.or.kr)

봄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 교육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부부, 가족, 영성 / 첫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 (전화상담 가능)

수도원 재건축을 위한 도움 요청

익산 성클라라봉쇄수도원은 재건축이 불가피
 하여 수도원을 철거했고 곧 공사를 시작합니다
 도움을 겸손되어 청합니다 / 문의: 010-6680-0692
 계좌: 국민 753501-01-480346 (재)천주교유지재단

가톨릭뇌은행 뇌기증 희망자 모집

치매와 파킨슨병 등의 퇴행성 뇌질환의 극복을
 위해 사후 뇌기증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 성인 누구나(만 19세 이상) / 문의: 02)2258-7660
 수시 모집 / 관련기관: 과기부 산하 한국뇌은행
 기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뇌은행

제주도 관광

제주운전기사회에서 가족, 단체, 골프수송, 관
 광 및 성지안내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문의: 064)758-6476, 010-4566-6476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in.com) 토요일상담 가능

개인심리치료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등
가족심리치료	부부, 가족(사별)간의 갈등, 행동문제, 대인기피

전진상 영성센터

곳: 명동 / 문의: 02)726-0700(www.jjscen.or.kr)

낮의 무의식, 모래놀이치료-	5월21일(화) 10시
진정한 본성과의 만남(5월 특강)	~12시 / 회비: 2만원
와인 인문학 산책	6월18일(화) 10시~12시 / 회비: 2만원
(6월 특강)	강사: 장홍(와인 인문학 산책) 저자

도미니코 수녀원 영성센터 / 문의: 010-5604-1882

전문 심리치료	개인(우울·공황·불안·강박·트라우마·해리 등), 가족·부부갈등, 종합심리검사
따숨 젊음이 기도모임	5월13일·5월27일(월) 19시30분~21시30분
젊음이 성소식별 피정	5월19일(일) 14시~20시

유관단체 알림

떼제노래 작은 피정·주일 미사 / 문의: 02)744-0840

대상: 하느님을 갈망하는 모든 이, 청소년·청년 환영
 때, 곳: 매월 세번째(토) 5월18일·6월15일·7월20일
 16시~17시45분, 햇살사목센터(주최, 혜화로2길20) 성당

베리타스심리상담센터 / 문의: 02)776-7726

심리상담 및 모래놀이 치료	가톨릭화관 501호(명동) / 정서적·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아동, 청소년, 성인, 부부갈등, 우울증, ADHD, 공황장애,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위한 상담을 원하는 분, 심리검사를 통한 자기이해
교육	미술심리상담사 자격교육과정: 5월18일~6월15일(토) 10시~15시(30시간) / 토닥토닥잘될거야 심리여행: 5월14일~6월11일(화) 10시~12시(5주)

직원모집

서울대학교 특수사목사제관 주방 근무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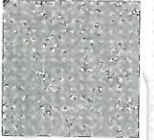
대상: 세례받은 분 / 분야: 주방 근무자 ◦명 계약직, 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응시원서(서울대학교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 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 5월19일(일)까지 우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74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무처) 및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도미니코 수도회	수시	수도원(강북구 삼양로 139나길 16-8)	010-2034-0042 이호준 신부
미리내 천주 성삼 성지수도회	수시 / 전화 상담 후 결정	본원	010-5195-3217 이 안철로 신부(성소부)
살레시오회	매월 네번째(토) 14시	수도원(대림동)	010-6221-3520 유명일 신부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5월26일(일) 9시	서울 분원(장충동)	010-8353-2323 (문자)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5월25일(토)~26일(일)	본원(미아리)	010-9816-0072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5월18일(토) 15시	성북동 수도원(선잠로 9-6)	010-8573-0567
천주교서울교구제천교회	수시	선교회	010-2749-4596, 02)749-4596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5월18일(토) 14시	수도원(개화동)	010-3800-1579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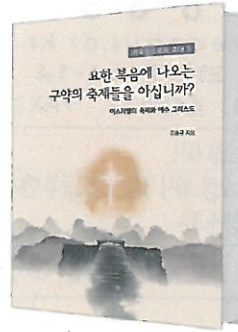
게재된
신간 검색



신간
사제는 오래된 나무처럼

배승록 지음
기쁜소식 | 244쪽 | 1만5천원
문의: 02)762-1194

대전가톨릭대학교 논문집 '복음과 문화'(제10호, 2006년)에 기고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다시 펴낸 책이다. 이 책은 사제직에 대한 신학적이고 이론적인 서술 대신에 전례와 성사와 같은 사제들의 직무는 물론 기도와 사제단의 형제애 그리고 세상을 대하는 자세 등 사제가 가져야 할 영성과 신학을 담고 있다.



신간
요한 복음에 나오는 구약의 축제들을 아십니까?

김동규 지음
기쁜소식 | 132쪽 | 1만원
문의: 02)762-1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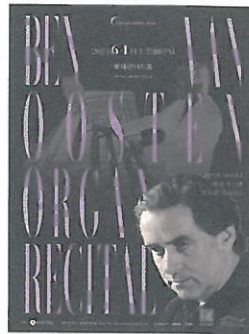
요한 복음서의 주요 배경은 안식일을 포함한 파스카와 초막절, 성전 봉헌 축제들인데 특히 중요한 사건들은 전통 축제의 장소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이 책은 탈출기, 레위기, 신명기를 요한복음의 내용과 연계하면서 그 축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떻게 예수님의 자기 계시(그리스도론)로 드러나는지 풀어내고 있다.



콘서트
**5월 JU콘서트
4th 음악이 있는 나무 요일**

일시: 5월 30일(목) 19시 / 무료 입장
장소: 청년문화공간JU 1층 카페(전철 2호선 흥대입구역 2번 출구)
문의: 02)338-7830

5월 30일(목) 19시, 청년문화공간JU에서 <5월 JU콘서트 4th 음악이 있는 나무 요일>이 진행된다. 청년문화공간JU는 지난해 새롭게 개관하여 청소년·청년들이 언제든 찾아와 휴식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이 되도록 콘서트를 기획했다. 네 번째인 이번 콘서트에는 초대 손님으로 피아니스트 '에드윈 킴'이 참여할 예정이다.



음악회
벤 판 우스텐 오르간 리사이틀

입장권: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4만원
문의: 1544-7744 롯데콘서트홀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지참시 주보 1부로 2명 30% 할인

네덜란드 출신으로 '프랑스 오르간 심포니 스페셜리스트'로 불리는 벤 판 우스텐이 6월 4일(화) 7시 30분, 롯데콘서트홀에서 무대에 선다. 비에른의 <세 개의 즉흥곡> 중 '주교의 행렬'을 포함하여, 프랑크의 코랄 제 1번 마장조, 비도르 오르간 교향곡 제 5번 바단조 중 1악장을 연주한다.

언제어느곳에서든
cpbc 플러스



이 무형의 성전을 통해 우리는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쉽게 듣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 고(故) 김수환 추기경님의 특별 메시지 <평화신문 창간과 평화방송 설립>을 추진하면서 중

cpbc플러스 다운로드

cpbc+



이 '무형의 성전'이 가톨릭평화신문, cpbc라디오, cpbcTV에 이어 가톨릭 콘텐츠 전문 OTT 'cpbc 플러스'로 이어졌습니다.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교회가 지붕 위에서 외치는 기쁜 소식을 만나보세요!



제2시대문·미포지구 대표본당
진주교연합회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대문구 연회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지구장신부 : 최성기(헨리코)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부주임신부 : 백종원(마르코)
부주임신부 : 박진호(사도요한)
연평회장 : 이범지(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 주 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 아 세 례	홀수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혼 인 면 담	매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성모신심미사	매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미소짓고, 인사하고, 칭찬하자!”

- 5월 15일(수)은 10시미사가 없습니다. 사무실 휴무입니다.
- 여성 구반장 야외행사
일시 : 5월 17일(금) 오전 7시 30분 출발
장소 : 용평
- 바오로시니어대학 봄소풍
일시 : 5월 17일(금) 오전 8시 30분 성당출발
장소 : 갑곶성지
- 초등부 부활 은총 잔치
일시 : 5월 18일(토) 오후 3시~오후 6시
장소 : 성당 마당, 지하 식당, 1층 로비
- 반디주일학교 봄소풍
일시 : 5월 19일(주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명동성당
접수및문의 : 바오로비안네 (010-7207-9295)
- 남성울뜨레야
일시 : 5월 19일(주일) 오전 11시 교중미사 후 301호
- 성소후원회 미사
일시 : 5월 21일(화) 오전 10시
※ 성소후원회 미사 30분 전부터 묵주기도를 시작합니다.
※ 10시미사 후 201호에서 회합이 있습니다.
- 청년 떼제기도
일시 : 5월 25일(토) 오후 4시~오후 6시
대상 : 청년 누구나
장소 : 소성전
문의 : 비아 연합회장 (010-2550-2375)
- 남성총구역 족구대회
일시 : 5월 26일(주일) 오후 2시~오후 5시
장소 :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문의 : 남성총구역장 (010-4913-1158)
※ 많은 형제님들의 참여를 희망해 봅니다.
- 여성울뜨레야
일시 : 5월 28일(화) 오전 10시미사 후 304호

- 병자여성체 : 5월 31일(금) 오전 10시 출발
- 문화학교 6월~8월 학생모집 (주일학교)
수강과목 : 바이올린, 통기타/우쿨렐레, 미술, 한글캘리그래피
개강 : 6월 1일(토)부터 / 매주 토요일 수업
접수기간 : 재접수 - 5월 15일(수)~19일(주일)
신규접수 - 5월 20일(월)~24일(토) 
접수및문의 : 문화학교 오픈채팅방에 신청
아네스 (010-4538-5665)
- 빈첸시오회 회원 모집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빈첸시오와 함께하실 회원분들을 모집합니다.
- 청년 한푸름성가대 단원 모집
매 주일 오후 6시 청년미사를 찬양으로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 단원을 모집합니다.
연습일시 : 매 주일 오후 4시
- 오늘은 홍보주일 2차헌금이 있습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4. 5. 5)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3년 책정율	2023년 납부율
2,004	705 (35.1%)	660 (32.9%)	43.7%	42.3%

교무금계좌번호 | 우리은행 | 137-04-110875

- ※ 교무금 자동이체 신청해서 납부 바랍니다. 교무금은 반드시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헌금 (4월 29일~5월 5일)
최원식일백만원 정숙주오만원
곽선모오천원 정송자일십만원
익명일십만원 익명오만원
이은희일십만원 나경엽일십만원
김재균오만원 김현수오만원
김인기일십만원 익명오만원
박명숙오만원
- 우리들의 정성 (부활 제6주일)
교 무 금14,091,000원
주일헌금5,133,000원
성모의 밤 꽃봉헌금 3,010,000원

입당	141	봉헌	245,219,512	성체	182,176,187	파견	140
----	-----	----	-------------	----	-------------	----	-----



환 호 소 리 가 운 데 하 느 님 이 오 르 신 다 - 나 팔 소 리 가 운 데 - 주 님 이 오 르 신 다